SEWON

"미래의 가치를 창조하는 글로벌 기업"

Create Global Value

SEWON

SEWON

뉴스레터 세원

2015 여름호 Vol.48

HOT Summer

여름 한 낮

- 시 유

소나기가 작은 북을 두드리듯

연잎을 밟고 지나가면

매미는 미루가지 나무에 앉아

연주를 한다

호박 덩굴이 살금살금 기어가는

울타리 너머로

쏘옥 고개 내민 해바라기 얼굴이

햇빛에 누렇게 익은 아빠 얼굴 같다

아까부터 장독대 곁 꽃밭에선

봉숭아씨가 토복토복 여문다

CONTENTS

2015년 여름호 Vol. 48

Speical Theme

시간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05

세원인의 '시간' 08

'시간'날 때 꼭 맛봐야할 세원 맛집 10

Secret Diary

직장백서

직장인 전화 예절 12

건강의 품격

번 아웃 증후군 (Burnout Syndrome) 14

Smart Life

여름 해충 퇴치 상품 소개 16

아름다운 기행

여름, 나만의 도심 속 피서지 18

Sewon Story

세원인의 발자취 20

Auto Focus

자동차 차체 관련 최신 기술 동향 24

자동차 인사이드

세계 자동차 번호판 이야기 26

해외소식 (삼하)

삼하세원 한마음 체육대회 28

해외소식 (SA)

메이저리그의 현장속으로 30

세원뉴스 32

러브레터 34

늘푸른이야기 36

요리보고조리보고 38

시원한 열무냉국수

칭찬합시다 40

참여코너

2015 여름 사진 공모전 42

도움주신분 43

사우동정

사보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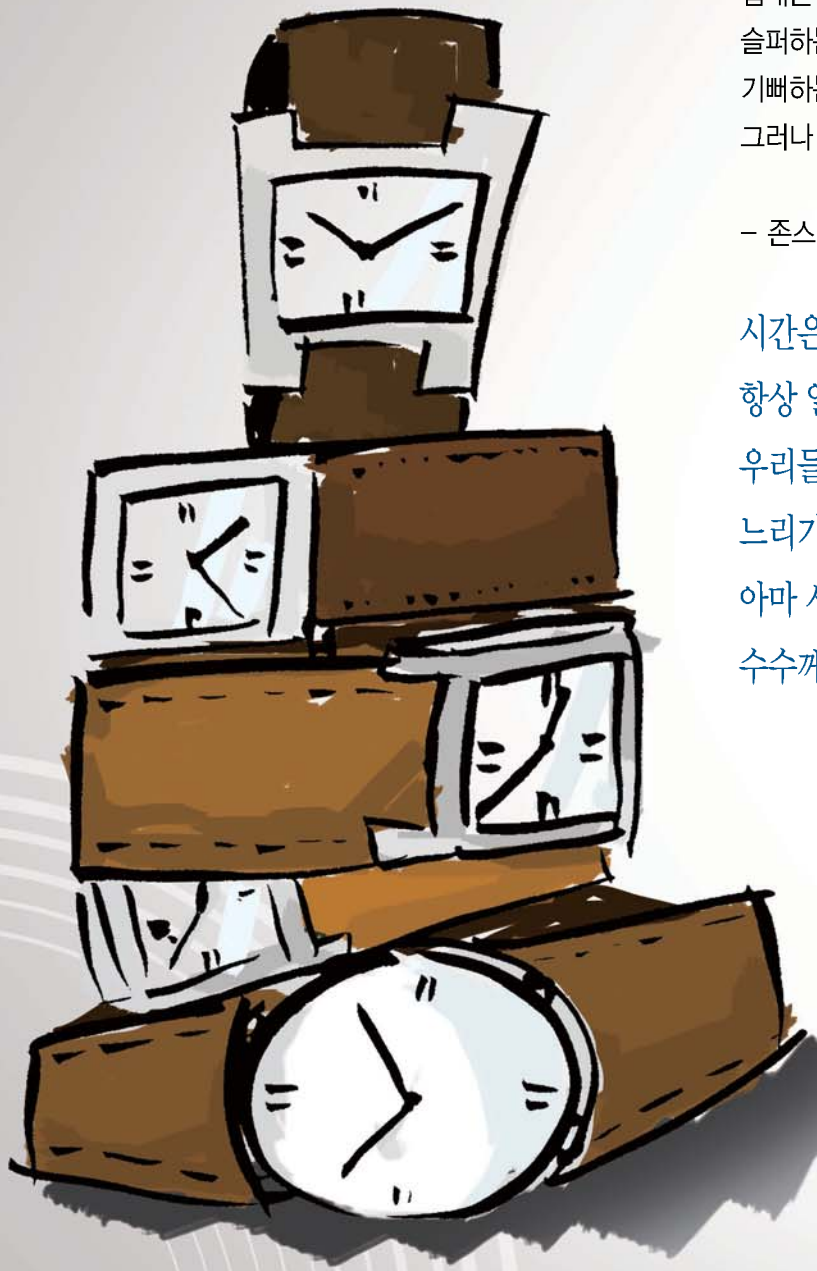
발행처(주)세원정공 www.se-won.co.kr **발행인** 김문기 **편집인** 성경환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554(신당동) ☎ 053)582-5161~9
발행일 2015년 7월 30일 **편집·디자인** 타이탄 053)525-7500
〈**늘푸른세원**〉은 세원가족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세원그룹의 계간 정보지**입니다.

시 간 [;Time]

시간이란,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느린 것이요,
겁내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빠른 것이요,
슬퍼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긴 것이요,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짧은 것이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시간은 영원한 것이다.

– 존스베리 –

시간은 참 신기 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일정한 속도로 꾸준히 쉬지 않고 흘러가지만,
우리들에게 시간은 다양한 상황과 감정에 따라
느리기도 하고 빠르기도 합니다.
아마 시간은 우리 인류의 가장 어려운
수수께끼가 아닐까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I

기술연구소 부품개발팀 최해성 대리

2014년 7월 불의 도시 대구에도 여름이 다가왔다. 이때는 차종이 너무 많아서 사춘기 질풍노도의 시기처럼 우리 개발팀에도 무척이나 힘든 시기(?)였다.
곧 미국으로의 긴 출장을 앞둔 나에게 다가오는 하루하루는 마치 입대를 앞둔 까까머리 대학생처럼 초조함의 연속이었고 모두 일에 더위에 지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힘든 삶 속에서 우리 기사로만 이뤄진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은 그렇게 갑자기 찾아오는 첫사랑처럼 추진되었고 그 누구의 방해(?)도 없기만을 기도할 뿐이었다.
출국 일주일 전 우린 바쁜 일상을 뒤로한 채 말로만 듣던 동강으로 래프팅을 하러 떠나게 된다. 휴게소에서 즐겁게 사진을 찍으며 저마다 추억을 만들기 위하여...

깎아지르는 절경을 구경하며 도착한 동강에는 명성에 걸맞은 멋들어진 강가는 온 데 없고 가물대로 가문 똥강만 덩그러니 우리를 보며 비웃고 있었다. 우리는 뜨거운 햇빛 아래 옹기종기 모여서 안전장비를 차고 스파르타의 전사처럼 노를 들고 앞으로 나아갔다. 마치 산란을 위해 캄차카 반도로 회귀하는 태평양 연어떼처럼... 살기 위해 미친 듯이 노만 저었다. 얼마 없는 물, 끝없이 부딪히는 바위, 뜨거운 태양... 어느 것 하나 우리의 작은 일탈을 쉽사리 허락해주는 이 없었다. 뭐. 물놀이를 하는것이었으면 캐리비안베이를 갔어야 했지만... 어쨌든 우리는 2시간 30분의 사투에서 승리하였고 그 부상(?)으로 저녁을 먹을 수 있었다.

그동안 서로 일이 힘들다며 불평만 하고 밤에 모여서 술만 먹었었지, 이렇게 시간 내어 다 같이 함께 무언가를 하는 즐거움을 왜 몰랐을까? 동료들과 같이 저녁 준비를 하고 같이 건배를 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 것, 그간 같이 하는 것에 너무도 소홀하였다. 이렇게 서로에게 잘하고 있다며 한마디씩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중 뜻밖의 선물을 받았다. 미국 가서 편하게 신고 다니라고 동료들이 쌈짓돈 모아서 사준 신발... 너무 고마워서 말도 안 나왔다. (미국 가서 안전화만 신고 다녀서 몇 번 신지 못한 건 함정) 동료들은 이쯤 되면 한바탕 눈물이라도 쏟아야 하지 않느냐는 눈으로 나를 쳐다봤지만, 고달픈 삶에 메마른 감정에 나에겐 그럴 여유도 없다. 그렇게 우린 늦게까지 일탈의 행복감을 만끽하며 서로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하며 잠이 들었다.

그 다음날도 일찍 일어나 우린 단양의 명소인 고수동굴로 향하여 무사히 던전 탐험을 끝내고 차이나타운 같았던 작은 시장에서도 우리만의 여유를 찾으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너무 행복했던 1박2일을 뒤로한 채...

뭐, 여행이란 건 그저 도망이다. 도망갈 이유가 없는 이들에겐 그저 무료할 뿐이요, 벗어나고 싶은자들에게 여행은 행복이 될 것이다. 우린 폰 쇤부르크처럼 명문가의 자손이 아니기에, 우리 같은 평민들에겐 꼭 필요한 삶의 거름 같은 일탈을 꿈꾸며 살 수 있는 것이다. 고된 하루가 있기에 작은 행복에 감사할 수도 있는 것처럼...

부디 이번 여름에도 우리가 꿈꾸는 일탈이 무사하길 바라며..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Ⅱ

세원이엔아이 개발부 안대현 사원

1. 동기와의 첫 만남, 첫 회식

2013년 12월 2일 동기와의 첫 만남이 시작되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다들 사회 초년생으로써 처음 대면하는 자리였다. 속으로 어떻게 빨리 친해질까 생각에 두려움도 있었지만 앞으로 같이 희로애락을 같이할 동기들이 있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했다. 부서배치 전 서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소개를 시작하며 서로에게 자신을 알리기 시작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 당시에 왜 그렇게 서로에게 어색했는지 모르겠다. 어색함을 풀고자 동기들과 첫 회식 때가 생각난다. 정말 추억에 남는 회식이었다. 지금은 저 사진 속에 없는 동기들도 있지만 이제 서로 부서에서 각자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며,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서로의 일이 바빠지면서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었긴 했지만 옛날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다 모일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2. 동기와의 여름휴가

2014년 8월경 세원에 입사하고 처음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여름휴가였다. 부서배치 후 입사한지 반년이 지났지만 우리 48기는 우애가 돈독했다. 여름휴가면 각자의 시간과 휴가 계획이 있어 다들 바쁠 텐데 모처럼 시간을 다 맞춰서 계곡에 휴가를 갔다. 이때 참석하지 못한 동기들은 내년을 기약하며 시간 맞는 동기들끼리만 갔다. 하지만 그날따라 비가 오고 날씨가 구름이 껴서 물놀이는 하지 못하고 실내에서 바비큐 파티 및 간만에 못 했던 담소도 나누며 서로의 업무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눌 수 있었다. 집에 오는 길에 선산 휴게소에서 추억 인증을 남겼다. 지금은 저 사진에 있는 동기 중 한 명은 미국 출장 가 있어 보지 못해 아쉽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참 재미있었다. 올해 2015년 여름에도 다시 한번 동기와의 휴가를 갔으면 좋겠다.

세원테크 총무과 김태윤 사원

저와 전인섭사원은 우연한 기회를 통해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당직 날 사무실로 올라와 추가 잔업 때문에 통근버스를 못 타서 집에 태워달라는 전인섭 사원의 말에 처음에는 조금 귀찮았지만 집까지 태워주었습니다. 태워주는 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전인섭 사원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고 입사 시기도 비슷하고 취미로 농구를 즐기는 것까지 코드가 맞아 우리는 점점 더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둘을 매개체로 하여 사무직 사원들과 현장 사원들이 만나 3:3 농구도 즐기고 게임이 끝나면 간단하게 맥주도 즐기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현장과 사무실이 다른 생각을 가진다는 것에 서로 놀랐지만 어떤 일이든 대화하고 이해하면 다 풀어질 수 있다는 것 또한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전인섭 사원과의 우정을 이어나가 세원테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원人의 시간

직장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루 중 가장 짜릿한 시간!

바로 점심시간과 퇴근시간이 아닐까요?

하루 중 온전히 자신을 위한 시간인 만큼 즐겁고 알차게

보내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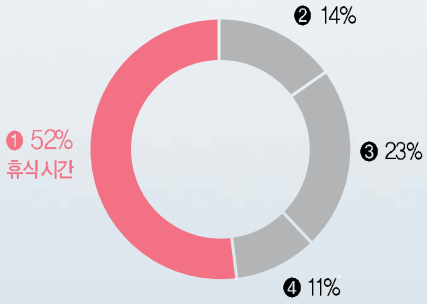
세원가족 분들은 자투리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요?

▶설문기간 : 2015년 6월 1일~ 6월 12일 ▶설문대상 : 세원그룹 임직원 100명

1 나에게 점심시간이란?

❶ 꿀맛 같은 휴식시간
❷ 동료들과 친분을 쌓을 수 있는 시간
❸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는 시간
❹ 업무의 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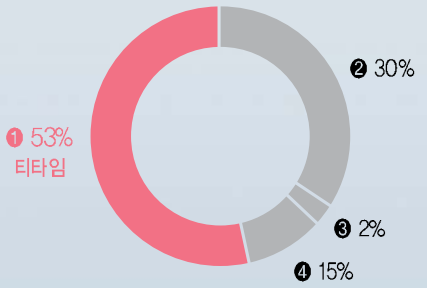
기타 : 단순히 밥 먹는 시간



2 식사 후 남는 시간 동안 무얼 하시나요?

❶ 동료들과 수다, 간단한 티타임
❷ 체력보충을 위한 달콤한 낮잠
❸ 체력이 국력, 산책 및 가벼운 운동
❹ 바쁘다 바빠! , 못다한 업무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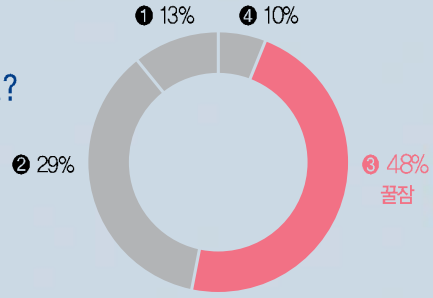
기타 : 사회동향 체크, 전화당번, 인터넷뉴스검색, 전화, 자리에 앉아 멍잡음



3 생각만해도 흐뭇한, 만약 점심시간이 늘어난다면?

❶ 체하지 않게, 천천히 식사
❷ 더욱 여유 있는 티타임으로 우리 사이를 돈독하게
❸ 보다 효율적인 오후 업무를 위한 꿀잠
❹ 늘어지면 안 된다. 밀린 업무 처리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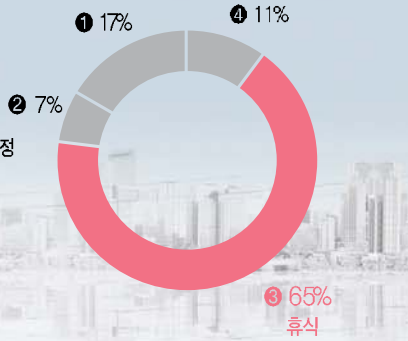
기타 : 지금도 길다, 체력단련, 퇴근시간도 늦어질 것 같음, 안부전화, 휴식, 더 오래 멍잡을 것임



4 퇴근 후 시간, 주로 어떻게 보내시나요?

❶ 잔업형, 퇴근을 해도 한 게 아니야! 계속되는 업무 걱정
❷ 음주형, 직장동료 /친구들과 술자리
❸ 뒹지형, 퇴근 후 즉각 집으로 귀가하여 휴식
❹ 자기개발형, 공부 및 취미활동으로 스펙 업!

기타 : 집으로 출근 (가사 및 애기 돌보기), 운동, 먹방



맛집

시간날 때 꼭 맛봐야 할 세원맛집

세원정공

▣ 성서 맛찬들 왕소금구이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1202-2
전화 : 053-588-8007
가격정보 : 왕소금목살(150g) - 9,000원
통생삼겹살(150g) - 9,000원
항정살(120g) - 9,000원
가브리살(120g) - 9,000원

세원정공 회식 장소로 선호도 1위! 맛찬들.
성서쇼핑월드 해성병원 뒷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기는 굽는 방식에 따라 맛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맛찬들에서는 320도로 가열된 불판에 고기를 올려 자주 뒤집지 않고 구워내 최상의 고기를 맛 볼 수 있답니다!
특히, 사장님과 사모님께서 직접 구워주시니 더운 날 힘들게 고생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맛있게 구워진 야들야들한 고기와 함께 백김치를 곁들여 먹으면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맛 보러 오세요! ^^

정공 그 외 맛집

안동갈비	성서 모다아울렛 뒷편 / 고기 맛이 죽여줘요!
강정메기	값이 싸고 맛있고 종류가 많아서 (서민형)
맛차이짬뽕	성서 모다아울렛 앞 / 짬뽕은 국물이 걸죽하고 얼큰함, 탕수육은 아주 바삭해서 맛있음.
대구통닭	닭으로 실패하는 음식은 없음 닭똥집이 완전 맛있어요. 치느님.
진국밥	토요일 특근시 자주가는 맛집
수가성두부보쌈	두부피보쌈집 / 새로운 맛! 두부가 보쌈이랑 어울림! 강력추천
강정메기매운탕	계명대 정문 맞은편, 반찬을 많이 줌
	7천원에 돼지두루치기, 돌솥밥과 김치찌개, 된장찌개, 밑반찬 등, 가보면 단골되는 곳.
달달치킨	야식으로 최고
딸부자막국수	만두전골 (겨울에 먹으면 맛있음) 막국수 (5천원에 곱빼기 추가금 없고 맛있음) 사장님과 친해지면 알아서 많이 줍니다.
카레센타	한 번쯤 가볼만 하고, 일본식 카레를 먹을 수 있다. 가격도 꽤 저렴한 편
슈프림 토스트	싸고 간단히 배불리! 감자프리미엄 토스트 추천입니다.
제주신물회	물회시원하고 맛 좋음
두부마을(다사)	싱싱한 식재료를 사용하여 건강식으로 안성맞춤. 대구내에서 자주 맛 볼 수 없는 채소를 제공해줌.
윤배네 숯닭스토리	닭을 좋아해서 가게 되었는데 숯불에다 구워 먹는 것이 맛있었음. 다먹고 얼큰한 닭칼국수도 먹으면 최고!
맥도날드 모다아울렛	간혹 패스트푸드가 생각날 때 유일한 안식처
텐고쿠(일본라멘전문점)	최소 30분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인기 많은 집!
땡초우동	맛있어요. 매운게 스트레스 해소됨
또이스치킨(찜닭)	

SEWON STYLE
SEWON STYLE SEWON STYLE
SEWON STYLE

세원물산

▣ 철이네 뒷고기

주소 : 경상북도 영천시 망정동 410-21
전화 : 054-000-0000

영천의 뒷고기 전문점 '철이네 뒷고기'
영천의 모든 직장인들이 회식 1순위 장소입니다.
메뉴의 종류는 뒷고기, 돼지껍데기, 등갈비, 막창 등 여러종류의 돼지고기를 팔고 있으며 반찬도 깔끔하고
기본양념 3종세트 양념된장, 참기름장, 간장소스가 있어서 여러가지 맛을 느낄수 있습니다.
추천메뉴는 뒷고기와 숙성시킨 돼지껍데기입니다.
회식장소로 추천입니다 ~

물산 그 외 맛집

- 만복이, 영화식당, 전원숯불가든

세원이엔아이

▣ 영천 삼송 군만두

주소 : 경상북도 영천시 교창길 10 (창구동)
전화 : 054-333-8806
홈페이지 : http://www.삼송꾼만두.kr
이용시간 : 매일 09:00 ~ 22:00 연중무휴
가격정보 : 군만두 - 5,000원

'**삼송꾼만두**'의 꾼만두는 군만두의 경상도 발음을 그대로 상호로 이용한 것입니다. 주택가 골목 안의 작은 가게에서 30년 이상의 전통을 이어오는 영천 맛집입니다.
메뉴의 종류는 꾼만두, 찐교스, 김치만두 총 3가지이며 가격 모두 5,000원으로 동일하며, 택배, 예약 주문도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여러 방송에 방영되어 유명하기도 하지만 런닝맨 촬영 이후 더 유명해져서 원래는 찐교스도 있는데 꾼만두 주문이 너무 많아 다른 만두는 안되고 꾼만두만 주문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엔아이 그 외 맛집

- **구육복손짜장의 잡채밥** : 짜장밥 보다 잡채밥이 더 맛있습니다.
- **호식이 치킨** : 양념소스가 맛있음 / 닭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곳
- **신토불이 국밥** : 국물 맛이 좋음 / 돼지국밥 맛이 일품
- **영천닭칼국수** : 김치가 끝내주게 맛있음!!
- 민정칼국수
- 서울칡냉면

세원테크

▣ 한성반점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휴대길 212 한성아파트 상가2층
전화 : 041-549-2263
이용시간 : 매일 10:30~20:00, 매주 일요일 휴무
가격정보 : 굴짬뽕밥- 8,000원
마늘탕수육 - 17,000원 (소), 20,000 (중), 26,000 (대)

천안, 아산, 배방 세 곳에 걸쳐있는 중화요리집!
세원테크와 아주 가깝습니다.
조그마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있어 눈에 띄진 않지만 아는 사람들은 일부러들 찾아가는 맛 집중에 맛 집이랍니다!! **한성반점에 유명한 것은 굴짬뽕, 마늘 탕수육,** 매운 단계별로 주문 할 수있는 **짜장면,** 이 3가지 인데요. 사장님도 너무 좋으시고요. 세원직원이라고 하면 아주 푸짐하게 음식을 담아주세요 ^^

세원 가족 여러분들!! 세원테크 오시면 한성반점에 꼭 들려 맛있는 식사하고 가세요!!

테크 그 외 맛집

- **힌두스테니** : 카리짱!
- **썬더치킨** : 가격대비 맛의 만족감이 뛰어남, 천둥번개같은 맛!
- **천안 터미널(야우리앞) 닭도리탕(볶음탕)집.**
- **이마트 고가다리 밑, 정석볼링장 근처 시골집 뼈해장국**
  : 음청 맵다. 스트레스 해소가 된다. 매운맛 단계는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하나 단골은 6단계 조절가능.

직장인의 에티켓, 전화예절

직장 내에서는 물론이고 외부 거래처와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통화를 할 일이 있습니다.
전화는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용건을 마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에서는 상대방과 전화를 이용한 커뮤니케이션의 비중을 높일 수 밖에 없는데요..
전화통화 시에는 상대방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하고 대화하기 때문에 '태도'가 중요합니다. 태도에 따라 신뢰를 주기도 하고 손실을 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취업포털 사이트에서 전화예절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니 업무 통화 중 불쾌하다고 느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97.2% 직장인이 그렇다고 답했는데요.
이번 직장백서의 '전화예절'을 통해서 평소의 자신의 전화 습관을 점검해보도록 합시다.

■ 전화 받는 매너

1. 전화벨이 울리면 즉시 받는다.
   벨이 여러 번 울린 뒤 받는 것은 실례가 된다.
   사정이 있어서 늦게 받게 된 경우에는 늦게 받아서 '죄송합니다' 라고 먼저 말하는 것이 매너이다.

2. 회사명과 부서명, 이름을 밝힌다.
   여보세요' 나 '어디시죠'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다.

3. 상대방을 확인 후 인사한다.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 '실례지만 누구십니까?'라고 물어 확인한다.

4. 메모를 준비하고 용건을 듣는다.
   전화는 왼손으로 받고 메모지를 항상 준비한다.

5. 용건이 끝나면 통화 내용을 요약, 복창하여 확인한다.
   복창은 상대방이 말한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의미가 되므로 꼭 확인하여 준다.

6. 마무리 인사를 한다.
   상대방에게 마무리 인사를 하고 상대방이 전화를 끊으면 끊는다.

■ 전화 거는 매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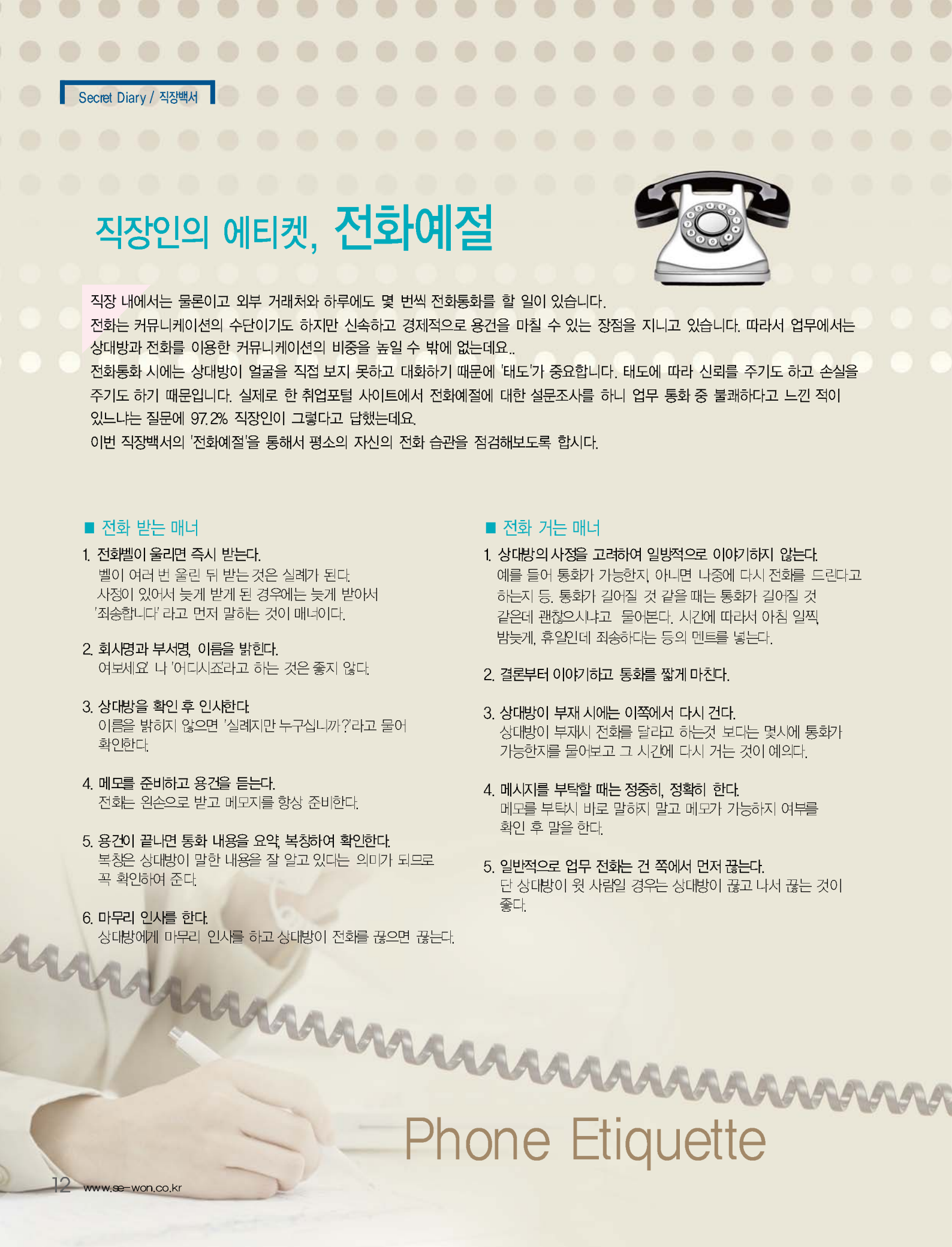
1. 상대방의 사정을 고려하여 일방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통화가 가능한지, 아니면 나중에 다시 전화를 드린다고 하는지 등. 통화가 길어질 것 같을 때는 통화가 길어질 것 같은데 괜찮으시냐고 물어본다. 시간에 따라서 아침 일찍, 밤늦게, 휴일인데 죄송하다는 등의 멘트를 넣는다.

2.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통화를 짧게 마친다.

3. 상대방이 부재 시에는 이쪽에서 다시 건다.
   상대방이 부재시 전화를 달라고 하는것 보다는 몇시에 통화가 가능한지를 물어보고 그 시간에 다시 거는 것이 예의다.

4. 메시지를 부탁할 때는 정중히, 정확히 한다.
   메모를 부탁시 바로 말하지 말고 메모가 가능하지 여부를 확인 후 말을 한다.

5. 일반적으로 업무 전화는 건 쪽에서 먼저 끊는다.
   단 상대방이 윗 사람일 경우는 상대방이 끊고 나서 끊는 것이 좋다.



Phone Etiquette

■ 전화 연결 요령 – 받는 사람이 있는 경우

동 작	요점 및 방법
보류버튼을 누르고 받을 사람에게 말한다	고객이 기다리지 않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연결합니다. 받을 사람이 상대의 회사명과 회사 또는 용건을 알면 건 사람이 몇 번씩 같은 내용을 말하지 않아도 되고, 대화도 부드럽게 시작됩니다. "대리님 인비닷컴 이순신씨로 부터 전화입니다. 00건으로 전화하셨는데 곧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돌려줄때	"네 연결하겠습니다." "혹시 끊어지면 123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리게 할 때	"죄송합니다. 통화중이신데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통화가 길어지고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잠시후에 다시 걸어 주시겟습니까?"
기다리게 했을 때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같은 성(이름)이 있을때는 성명과 소속을 확인	"홍대리님은 두 분이 있습니다만 어느 부서의 홍대리님을 찾으십니까?"
조금 시간이 소요 되리라 생각될 경우	"괜찮으시면 이쪽에서 다시 전화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용건을 잘 몰라 담당자를 바꿀 경우	"죄송합니다만 그업무는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라 담당자인 홍길동씨를 바꿔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 전화 연결 요령 – 받는 사람이 없는 경우

동 작	요점 및 방법
부재중임을 알린다	잠시 자리를 비운 경우 : 출장, 휴가, 식사, 회의등의 경우를 간단히 말하고 끝나는 시간, 귀사 예정 시간 및 일자를 말합니다. "지금은 휴가 중 이십니다. 다음주 월요일 출근 예정입니다."
용건 해결이 가능한 경우	공적인 업무에 관계된 용건인 경우 자신이 해결, 처리해 드릴 수 있을때에는 그 점을 알립니다. "그 일이라면 제가 내용을 알고 있으니 말씀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용건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전화받을 사람이 꼭 해결해야 할 경우 육하원칙에 의거 받아 적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00건으로 전화주셨고 금일 오후 5시까지 연락 바란다고 전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받는 자신의 성명을 재차 알려준다	책임있게 전화 응대함을 알려줍니다. "네 저는 이순신입니다.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끝인사 후 끊는다	상대가 끊고나서 조용히 수화기를 놓습니다.

▣ 취업포털 인크루트에서 직장인 675명을 대상으로 업무전화와 관련 설문조사

1. 업무 통화중 불쾌했던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 97.2 % 없다 2.8 %

업무 전화통화 중 가장 불쾌하였던 순간은?

1위 : 본인을 밝히지 않고 대뜸 용건부터 물을때 (28.2%) 2위 : 전화 받는 사람마다 '담당 부서를 모르겠다'며 계속 전화를 돌릴 때 (20.3%)

3위 : 불친절한 목소리나 말투 (19.5%) 4위 : 반말 (15.4%) 5위 : 말이 끝나지 않았는데 툭 끊을때 (8.7%)

6위 : 연락 달라고 메모 남겼는데 연락 없을 때 (3.5%) 7위 : 용건을 조리있게 전달하지 못할 때 (2.7%)

8위 : 오랫동안 전화를 받지 않을 때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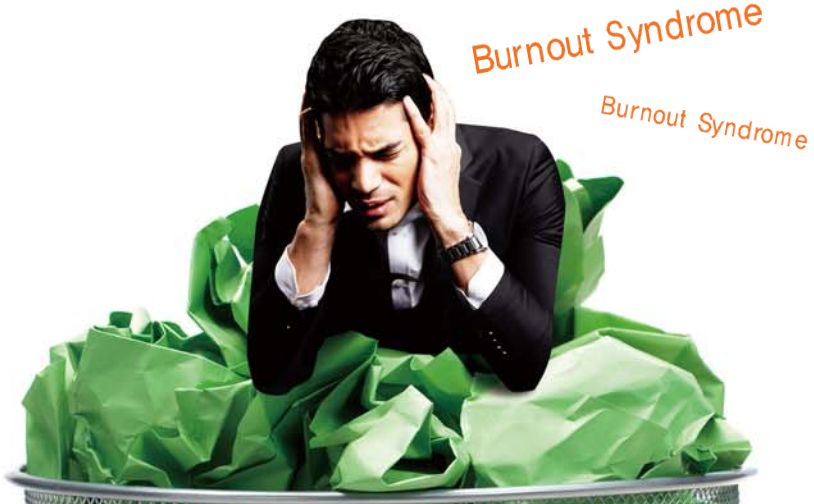
2. 본인의 업무전화에 대한 태도를 지적받은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 43.9 % 없다 56.1%

어떤 태도를 지적 받았는지?

1위 : 부재중임을 알리지 않고 전화를 당겨 받지 않았을 때 (27.0%) 2위 : 용건 전달이 제대로 못했을 때 (25.0%)

3위 : 목소리 톤이나 말투 (22.0%) 4위 : 전화 매도를 전달하지 않았을 때 (17.2%)

5위 : 본인을 밝히지 않고 대뜸 용건부터 물어볼 때 (11.8%) 6위 : 말이 끝나지 않았는데 툭 끊을 때 (1.8%)



번아웃 증후군이란?
(Burnout Syndrome)

번아웃 증후군은 사전적 의미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나 기력 등이 다 없어져 피로감으로 인해 무기력증, 자기혐오, 직무 거부 등에 빠지는 증상으로,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직장, 사회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스트레스가 암이나 만성질환 등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현대인들에게 치명적인 정신적, 육체적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불 타서 없어진다(burn out)' 고 해서 붙여진 이 말은 부정적인 스트레스의 극단적인 형태입니다. 지난 3월 150명의 사망자를 낸 독일의 비행기 추락사고를 낸 조종사도 평소 번아웃 증후군을 앓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 돼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 혹시 내가 번아웃 증후군? 번아웃 증후군 자가 진단법

1) '아침에 일어나면 답답하고 한숨이 나온다'

2) '자주 깜박거리고 기억력이 감소한다'

3) '사소한 일에도 짜증나고 화를 못참는다'

4) '어디론가 도피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5) '원하던 일을 이뤄내도 성취감이 없다'

이 다섯가지 사례 중 세가지 이상이 해당되면 번아웃 증후군을 의심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최근 진행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10명 중 4명(39.5%)은 자신이 번아웃 증후군을 겪고 있다고 답했고, 61.4%가 자신뿐 아니라 주변에도 번아웃 증후군에 빠진 사람이 많은 것 같다고 응답했습니다. 심지어는 10명 중 7명은 아침에 일어나 출근 할 생각만 하면 피곤함을 느낀다고 했고, 이것은 나이가 적을수록 직급이 낮을수록, 더 많이 동의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번아웃 증후군 해결법

1. 숙면 취하기

최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번아웃 증후군 해결법으로 "수면"이 1위로 꼽혔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직장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4~5시간으로 성인 권장 수면 시간인 7~8시간에 비해 3시간 가량 부족한데요. 쌓였던 피로를 풀고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잠"이 필수적이랍니다.

2. 잠깐씩이라도 여유 시간을 갖는다.

업무에 지치고 스트레스가 느껴질 때면 잠시 여유 시간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른 동료들과 수다를 떨며 여유를 가지거나,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하며 명상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사실!

3. 취미생활 등 다른 일에 몰두 해보기

업무에 과도한 몰두는 오히려 신체에 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업무 이외에 몰두 할 다른것이 필요하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 노력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아요.

업무에 몰두하다 보면 피로와 스트레스는 당연지사. 하지만 일을 잘하기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자신의 건강을 위해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노력도 매우 중요 하답니다! 가끔씩은 자신을 뒤돌아보며 힘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Burnout Syndrome

여름 해충퇴치 상품

따뜻한 시기 봄이 지나고 벌써 모기가 앵앵거리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특히 캠핑 등 야외 활동 때는 벌써부터 활동을 시작한 모기를 볼 수 있습니다.
건강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살충제를 쓰지 않고 벌레들을 쫓아내는 방법은 없을까요?

▣ 레몬 유칼립투스 오일

레몬 유칼립투스 나무에서 추출되는 오일은 신선한 향기를 냅니다. 레몬 유칼립투스 오일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해충 퇴치제인 디에틸톨아미드(DDT)를 대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유일한 것이기도 합니다. CDC에 의하면 레몬 유칼립투스 오일은 모기와 진드기를 퇴치하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은 레몬 유칼립투스를 키울 경우 너무 번식력이 강해 손쉽게 정원을 뒤덮을 수 있는 것과 레몬 유칼립투스 오일을 삼킬 경우 독성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에게 절대 사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 페퍼민트

박하라고도 불리는 허브의 일종인 페퍼민트는 그 달콤한 향기를 맡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생기가 살아납니다. 하지만 모기와 벼룩 등의 해충들은 이 향기를 싫어합니다. 집 테라스나 바비큐 화덕 주변에 있는 페퍼민트는 모기를 쫓고 유충을 죽이는 효능이 있습니다. 야외활동 등을 할 때 모기에 물리려면 페퍼민트 오일을 관자놀이나 귀 뒤쪽 수위, 목과 손목 등에 바르면 됩니다. 또 손에 두드려게 바르거나 옷에 살짝 발라도 좋습니다.

▣ 모기차단 스프레이

모기나 벌레 진드기 퇴치에는 밴드나 패치 제품보다는 돈이나 옷에 뿌리는 효과가 더 뛰어나며, 뿌리기만 하면 되니깐 간편하고 향수 같아 자극이 없습니다. 야외활동이나 캠핑 중 간편하게 손에 묻히지 않고 뿌리면 모기, 벌레 걱정 없이 맘 편히 캠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열이나 땀이 많기 때문에 모기, 벌레들에게 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 뛰어놀아도 옷 위에 직직 뿌리면 허충을 차단할 수기 있습니다.

▣ 버그스파크

휴대용 '버그스파크(BugSprak)' 해충 퇴치기는 모기, 나방, 날파리 등의 해충 살충 시 소음이 전혀 없습니다. 살균 기능 및 유기물 분해 기능 제공으로 깨끗한 공기 유지가 가능하고, 차세대 친환경 LED를 사용하여 친환경적이고 인체에 무해하며 기존 램프 수명 대비 20배에 가까운 수명을 자랑합니다. 친환경 LED의 은은한 불빛은 취침등, 무드등으로 활용이 가능하여 뛰어난 인테리어 효과를 제공합니다. 버그스파크는 가정, 사무실은 물론 여름휴가 시즌에 해수욕장, 캠핑장, 민박집, 차량, 낚시, 전원생활 등 산과 강, 바다, 계곡 아웃도어 레저용으로 안성맞춤입니다.

버그스파크 39,800원 – 세상네트웍스

▣ 모기차단 로션

오프 모기차단제는 간편하게 바르기만 하면 피부에 얇은 막을 형성해 모기 접근을 차단시켜줍니다. 모기가 싫어하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사전에 가볍게 발라주면 모기의 접근이 사전에 차단돼 모기에 물리고 난 뒤 가렵거나 부어오를 염려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단 효과도 최대 8시간까지 지속돼 더운 여름 끈적이는 느낌 없이 산뜻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키즈용도 판매되고 있는데, 생후 6개월 이상 사용 가능하며 2~3시간 동안 모기로부터 안전합니다.

오프 로션 7천원대(100ml), 오프 키즈 6천원대(100ml)

여름, 나만의 도심속 피서지

어느덧 코앞까지 다가온 휴가. 모두들 휴가 계획은 잘 세우셨나요? 해외로 나가볼까 생각도 했지만 조건에 맞는 항공권은 이미 다 매진이고, 국내로 눈을 돌려보자니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유명한 관광지는 이미 수많은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 사람을 구경하러 온 건지 여유를 즐기러 온 건지 당최 알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직까지 특별한 휴가 계획을 세우지 못한 분들을 위한 '도심속 나만의 피서지' 입니다!

▣ 서울 수도권 • 금선사 템플스테이

여유로운 휴가를 만끽하고 싶지만, 어딜 가도 붐비는 인파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절정의 휴가시즌에도 여유로움과 느긋함을 즐길 수 있는 곳, 금선사 템플스테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선사는 서울 삼각산의 풍광이 수려한 손꼽히는 명찰로서 청와대와 경복궁이 위치한 북악산과 인왕산이 바로 보이는 종로구 구기동 삼각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곳 금선사에서의 템플스테이는 문화체험형, 휴식형, 맞춤형, 수행형 등의 프로그램 중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체험할 수 있으며, 특히 자녀가 있는 가족들의 신청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이번 여름휴가는 금선사 템플스테이를 통해 산속에서 여유롭고 시원하게 즐겨보는 것이 어떨까요?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196-2
문의 : 종무소 02)395-9911 | 템플스테이 02)395-9955

▣ 충청도 • 충청북도 제천시 용하구곡(억수계곡)

휴가기간 동안 누구나 차량 적고 인적 드문 휴가지를 찾으려 하지만, 그것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대안으로 휴가 일정을 절정인 피서철만은 피해 잡으려 해도 그 조차도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달콤한 휴가를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 이곳 역시 인적이 드물지는 않겠지만, 그나마 한적하게 더위를 피해 피서를 즐길 수 있습니다.
계곡미가 빼어나고 곳곳에 텐트 칠 자리가 넉넉해 이미 오래전부터 캠핑족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용하계곡은 물이 '억수로' 맑다고 하여 '억수계곡'이라 불리기도 하며, 아홉 개의 풍경을 지니고 있다는 뜻에서 '용하구곡'이라고도 불립니다. 올 여름 피서지는 맑은 물과 신선한 공기, 시원한 자연 바람이 있는 용하구곡에서 보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주소 :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문의 : 월악산사무소 043)653-3250

▣ 대구 • 대구 신천 물놀이장

무더운 날씨로 유명한 대구에 도심 속 물놀이장이 있습니다. 대구 신천 물놀이장은 매년 7~8월에 운영되며, 운영기간 내내 대구 시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일명 '강수욕장'입니다. 도심 속에서 피서를 즐길 수 있다는 장점과 더불어 1급수인 가창댐 청정수를 활용하여 수심을 40~80cm로 유지함으로써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 놀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무료로 운영된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 탈의실, 화장실, 그늘막, 파라솔 등이 제공된다는 점 또한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이용시간 : 오전10시~오후7시 / 7.19~8.31 (44일간) 2014년 기준
이용요금 : 무료
문　　의 : 신천관리소 053)476-9912

▣ 대구 • 아르떼 수성랜드 아이스링크장

지난 겨울내 입던 두꺼운 외투를 다시금 옷장 속에서 꺼내야 할 때가 도었습니다! 잠깐 시원하기만 해도 땀이 뚝뚝 떨어지는 한여름에 이게 두내체 웬 말이냐고요? 바로 '아르떼 수성랜드 아이스링크장'을 가기 위해서입니다. 무더운 더위에서 벗어나 시원함을 찾으러 산으로, 바다로 떠나는 것도 좋지만, 하루쯤은 시원하고 톳해 솝기까지 한 아이스링크장에서 가족, 연인과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떨까요? 더위를 이겨내과 동시에 평소 못한 운동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 아이스링크장에서 누려보세요!

이용시간 : 평일, 주말 오전10시~오후5시45분
(방학특강기간) 평일 오후12시~오후5시45분
이용요금 : 대여료(스케이트, 헬멧) 3,000원
입장료 어린이 4,000원 / 청소년 4,500원 / 성인 5,000원
문　　의 : 아르떼 수성랜드 053)762-6622~3

세원人의 발자취

인생은 길고 긴 여행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행복을 마주하며 여행의 종착지로 흘러가며,
어떤 사람은 불행과 마주하면서 여행을 계속합니다.
인생이라는 여행에서 더 많은 행복과 마주하길 원한다면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것이 인생의 행복을 디자인합니다.

이번 늘푸른세원 여름호에서는 세원인들의 지난 발자취를 추억하고 앞으로의 인생 계획을 담아보았습니다.

10대

친구들과의 추억이 가장 많았던
10대를 회상해봅니다.
친구들 덕분에 다소 내성적이었던
제 성격이 외향적으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그 시절 사진을 보고 있자면
정말 제가 맞나 싶습니다.
스포츠머리 짧은 헤어스타일로 10대를
보냈고, 머리를 길러 본 적이 없었습니다.
웃어라는 구박뿐.. 그래도
후회는 없습니다. 좋은 추억,
좋은 선생님, 좋은 추억을
간직하고 있기에"

"이제 겨우 제 나이 28세.
오랜 인생을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
다사다난 했던 20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역시나 그중에 군 생활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육군 운전병으로
무사히 제대를 했고,
2년에 가까운 군 생활을 어떻게 했나
싶을 정도로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여수 엑스포를
갔었습니다. 호응을 잘했던 탓인지
공연단원들에게 차출되어 함께 소규모
공연도 했었습니다."

20대

30대

"30대 시작의 문턱에 서있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운명의 배우자를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은 결혼이 무엇인지,
해야 되는 것인지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아무튼 32세에 운명의
공무원 여인과 화촉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1년의
뜨거운 신혼을 보내고 딸 하나, 아들 하나
두 살 터울의 이지훈 주니어를
만나게 됩니다."

인생은 단 한번 뿐이다

후기

"사보에 첨부할 사진을 찾다 보니 제가 태어났을 당시의 사진과 어릴 적 사진을 보며 기분 좋은 과거 회상의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앞으로의 희망찬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뜻 깊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생각한 바 뜻대로 다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두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이엔아이/ 개발부 **이지훈** 사원

"40대 초반 무렵,
아쉽게 로또 2등에 당첨이 됩니다.
좀 더 넓은 평수의 새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고, 가족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녀들이 커가는 것에 힘을 내고
열심히 가정을 이끌어 갑니다.
학창시절 6년간 수련했던 검도를 다시
시작하게 되며, 건강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는
가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사업 확장에 성공하게 됩니다.
일적으로도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는 멋진
가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유머감각과 젠틀함을 갖춘
저는 멋진 노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40대 — 50대 — 60대

인생의 전환점이 도래하게 됩니다.
로또 1등에 당첨!
제 꿈과 이상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평생 꿈꿔왔던 목표 실현을 위해
정들었던 세원을 떠나게 됩니다.
그것은 '부산지역 장애인 콜 밴 사업'.
20대 중반 3여 년간 장애인
활동보조를 하며 목표를 세운 것이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있는 이분들을 위해
제가 꼭 이 사업을 성공 시킬 것입니다.

세원人의 발자취

인생은 길고 긴 여행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행복을 마주하며 여행의 종착지로 흘러가며,
어떤 사람은 불행과 마주하면서 여행을 계속합니다.
인생이라는 여행에서 더 많은 행복과 마주하길 원한다면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것이 인생의 행복을 디자인합니다.

이번 늘푸른세원 여름호에서는 세원인들의 지난 발자취를 추억하고 앞으로의 인생 계획을 담아보았습니다.

10대

'10대의 마지막
고3 수능을 마치고 결과야
어찌됐든
그동안 짓눌렸던 모든 것을
털어내린 날
교과서와 문제집으로도
탑 쌓고 인증샷

"청춘과 낭만으로
가득한 20대
대학을 가고, 여자친구를
만나고,
뭘 하든 친구들과 있으면
즐거웠던 대학시절
한여름 대전 해수욕장에서!"

20대

30대

"이제 곧 30대,
우리 결혼할까요?
치열하게 부대끼는 전쟁 같은 삶에
넌 내 피로감을 씻어주는
샤워같은 존재,
수많은 삶의 기로에 내 손을 잡고
이제 기도해
기쁨과 슬픔 모두 함께 하기로,
사랑해 ♡"

인생은 단 한번 뿐이다

후기

"10대를 추억하면 정말 많은 일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는데 벌써 10년 이상 흘렀다니 ㅎ 추억의 세계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10대의 장난기 많은 제가 앞으로의 30~60대까지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무엇인가 이루고, 성공하겠다는 구체적 계획보다는 평범하지만 행복할 수 있는, 가족을 위한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막연히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려면 지금 그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해야겠지요? 목표를 잡고 노력해서 이루는 것도 좋지만 뭐라도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언젠간 그 노력이 빛을 볼 날이 있지 않을까요? ^^ "

세원테크 / 자재과 **김광은** 사원

"40대, 다 함께 떠나자!
힘들고, 피곤하고, 쉬고 싶어도
한 달 한 번은
아빠는 슈퍼맨이야
얘들아 걱정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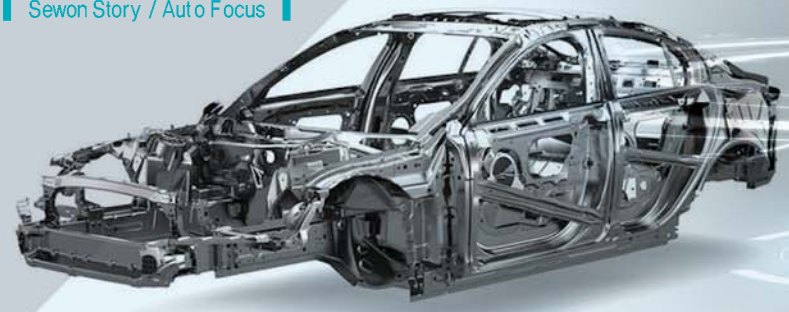
40대

50대

"50대, 서먹서먹
하지 않은
아이들과 의사소통할 줄
아는 로맨티시스트
아빠가 되길"

"60대, 자신의 꿈보다 가족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가장이라는 이름의 아버지가 되길"

6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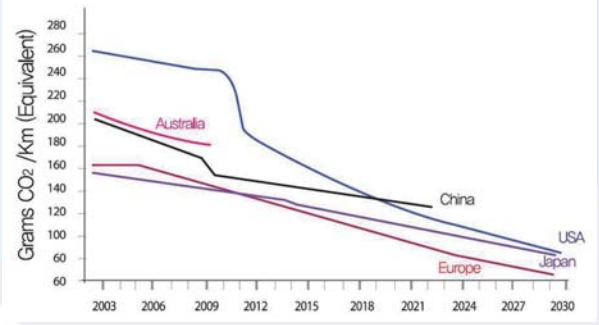
세원 기술연구소
신기술팀 **이창훈** 사원

자동차 차체 관련 최신 기술동향

1. 서론

최근 자동차 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으며, 자동차 업계는 자동차의 매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이산화탄소의 삭감과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구조의 변혁에 항상 매진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경량화는 연비 향상에 의해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이는 가장 유효한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번 오토포커스에서는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차체 경량 기술 관련한 최신 기술 동향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국가별 자동차 CO2 배기가스 배출 규제 추이 〉



※출처 : Navigant Reasearch (2014.07)

2. 내용

(1) 소성가공기술

단조가공에는 금형이나 공구 등에의 부하를 고려하면 경량재료의 사용이 유리하며, 알루미늄합금, 티타늄합금, 마그네슘합금 등의 경량재료가 단조에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초고장력 강판 핫 스탬핑공법, 스프링백 제어, 성형성 향상, 늘어붙음 방지 등이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현재는 금속재료가 주를 이루지만 차후에는 열가소성 탄소섬유 강화플라스틱(CFRP) 복합재료의 성형 시간 단축 및 저코스트화를 달성하여 실용적인 기술의 확립이 필요하다.

(2) 이종소재접합기술

최근 산업분야에서 구조용 재료로 고장력강판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섬유 강화 플라스틱(FRP)과 같은 신소재가 적용되고 있다. 특히, 에너지 절감과 환경보호의 관점에서 경량이면서 고탄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량 소재인 FRP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경량화 소재의 활용을 위해서 이종 수지 간, 수지와 금속 간의 이종재료의 접합기술이 필요하며, 마찰교반법, 단접법, 소성체결법의 개발이 기대된다. 특히 CFRP는 금속이나 열가소성수지와는 달리 용접과 열융착이 불가하므로 접착제로 접합하는 공법을 주로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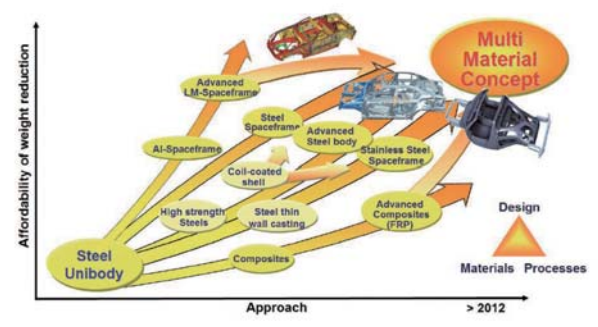
〈이종소재 접합 예 – 리벳, 접착제 〉

※출처 : Bollhoff 및 SGL자료

(3) 철강재료

철강 재료의 사용 비율이 점차 감소되고 있지만 현재에도 자동차 중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장강도 780MPa 이상의 높은 강도를 가진 고장력 강판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재료조직을 극한으로 미세화한 기술에 의해 강도와 연성을 동시에 향상시킨 1.2GPa 급의 고성형 초고장력 강판이 개발되어 냉간 프레스에서 복잡한 형상의 부품의 가공이 가능하며, 유럽에서는 1.5GPa 급의 강도를 갖는 공법을 개발하여 동일 부품에 서로 다른 강도를 갖고 부분 열처리하는 기술 또한 개발 적용되어 실용화되고 있어, 앞으로 설비투자, 생산성, 생산비용의 관점에서 차량 경량화의 주류를 이룰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동차 차체소재 적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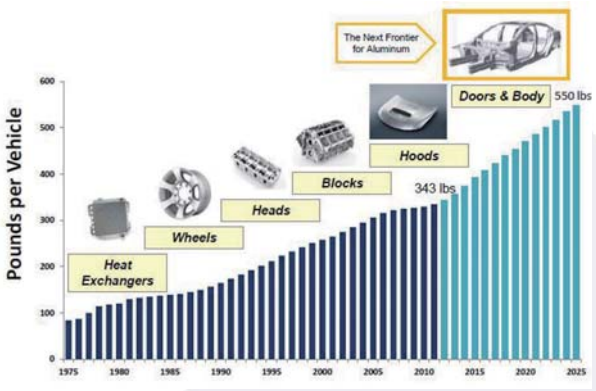


※출처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4) 알루미늄 합금

알루미늄합금은 엔진 후드, 도어, 트렁크 리드 등 주로 차체에 적용되는 박판부품에 많은 이용 실적이 있지만 재료 비용 및 고강도화, 고성형성에의 대응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 이용량은 순조롭게 신장된다고는 보기 어렵다. 또한 알루미늄합금의 재료비 부분을 보상하기 위해 부품 제조 일관공정을 어느 정도로 압축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성형성을 대폭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가공기술 개발, 섀시부재에 대해서는 압출 재료를 소재로 한 단조품의 저가격화가 시도되고 있으며, 충전재로써 이용할 수 있는 발포알루미늄의 개발 및 보닛이나 천정재로써 사용하기 위한 다공성 샌드위치패널도 개발되고 있다.

〈자동차 산업에서의 알루미늄 적용 추세〉



※출처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5) 마그네슘합금

마그네슘합금은 실용되고 있는 구조용 금속재료 중에서 가장 경량의 재료이며 기계적 특성이 우수하지만, 내식성 부족, 소성가공성 결핍, 높은 제조비용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 실용화된 마그네슘합금의 대부분은 다이캐스팅 주조 재료로서 진전되고 있으며, 기계적 성질은 조직적 요인에 의해서 크게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마그네슘에 적합한 소성가공 기술의 개발에 기대가 크다. 향후 대형 부재에 적용할 수 있는 저비용 및 고기능의 표면처리 기술이 불가결하며 이를 위해서는 고내식성 피막에 관해서 재료에서부터 막 조직, 형성 프로세스에서의 기술혁신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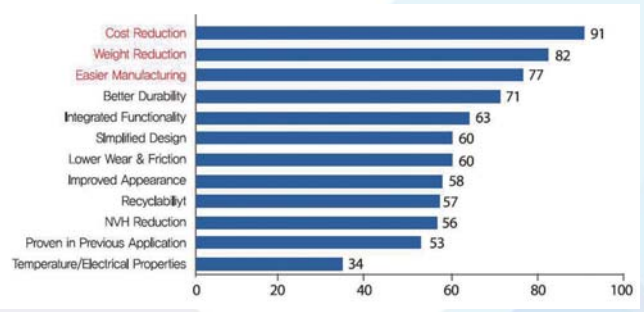
(6) 수지 및 복합재료

자동차의 생산성을 고려하면 수지재료의 경우는 사출성형 및 프레스 성형을 할 수 있는 열가소성 수지의 고성능화가 중요한 과제이며 복합재료의 경우에는 열가소성 수지를 매트릭스로 하는 CFRP의 고성능화가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CFRP 복합재료는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 제조비용이 높고 상당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한편 BMW i3가 시판되어 강성과 승객 보호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실증되었으며 알루미늄보다 30% 경량화의 달성이 주목되었다. 자동차 부품의 성형에는 사출성형 및 프레스성형이 필수이므로 이에 적용할 수 있는 고강도이면서 표면품질이 우수한 CFRP 성형 재료의 개발이 필요하다.

3. 결론

경량화는 신소재 적용 비율에 따라 좌우되므로 신소재 개발이 경량화 기술의 핵심이 될 것이며, 단순 무게 절감뿐 아니라 제조 원가, 양산성, 안전성, 내구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경량이면서 고탄성의 특성을 가진 FRP의 자동차 차체 적용과 그에 따라 안정적인 접합기술이 미래의 중요한 기술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내 차체 업계는 신소재 적용 기술력을 확보하여 미래의 차체 경량 기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소재 선정시 우선 고려사항〉



※측치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Auto focus에 보내주시는 성원에 보답하고자 매 호마다 퀴즈를 내고 정답자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퀴즈 정답은 이메일(danakang11@se-won.co.kr)로 보내 주세요.

• QUIZ : 실용되고 있는 구조용 금속재료 중에 내식성, 소성가공성, 비용문제 등의 문제점을 가지지만, 가장 경량 재료이며 기계적 특성은 우수한 경량 소재는?

• 지난호 QUIZ 정답 : 자율주행 자동차

License Plate

세계 자동차 번호판 이야기

최초의 자동차번호판은 1893년 프랑스에서 생겼다고 합니다.
당시 파리 경찰은 차주의 이름과 주소, 등록번호를 기재한 철판을 차량 앞에 달게끔 하였는데, 이것이 오늘날 자동차번호판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동차번호판의 역사만 해도 무려 120년이 넘어가니, 나라마다 고유의 역사성과 문화적 개성을 반영한 다양한 번호판이 존재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겠죠?

그럼 지금부터 개성 있는 국가별 자동차번호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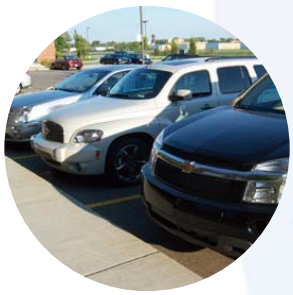
예전 우리나라 자동차번호판에 해당 도시의 이름이 적혀있던 것처럼 미국의 자동차번호판에는 각 주의 이름이 적혀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주의 문화와 특성을 그림으로 표현함으로써 도시의 특색을 아주 잘 살리고 있습니다. 오렌지가 그려져 있는 번호판을 보고 있으니, 세계 최대 오렌지 생산지 플로리다가 저절로 연상되지 않나요? 미국 남동쪽에 위치한 휴양도시로서, 아름다운 해안과 맛있는 오렌지가 일품인 플로리다 주의 자동차번호판입니다. 눈 덮인 빙하와 산맥, 그리고 백야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이 자동차번호판은 바로 미국의 49번째 주인 알래스카입니다! 오로라를 보거나 빙하 위에서 스키를 타기 위해 전세계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는 알래스카, 이곳 알래스카의 특색을 매우 잘 표현하고 있는 이 자동차번호판을 보고 있으니 시원한 기분마저 듭니다!

▣ 독일

독일뿐만 아니라 EU 가입국들의 자동차번호판은 그 형태가 상당히 유사합니다. 우선 좌측 상단의 별은 유럽연합을 뜻하며 그 아래 D는 Deutschland(독일)을 뜻합니다. 그리고 RA는 독일 내 도시(지역)를 뜻하며 KL 8136은 차량 소유주가 원하는 영어와 숫자입니다. 이 자동차번호판의 기본적인 형태를 바탕으로 대동소이한 번호판을 사용하고 있는 유럽에서, 독일만이 단 한가지 다른 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금지된 알파벳 조합입니다. 독일에서는 KZ – Konzentrationslager (학살의 상징과도 같은 수용소를 의미), AH – Adolf Hitler (히틀러의 약자)와 같이 히틀러를 찬양하거나 의도된 나치추종자들의 시그널을 연상하게 하는 알파벳 조합을 자동차번호판에 절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2차 대전 패망 후 다시는 불행한 역사를 만들지 않겠다고 대내외적으로 다짐한 독일, 한낱 자동차번호판에 불과하지만 이것을 통해 독일인들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금지된 알파벳 조합은 SS (나치친위대), HH (하일 히틀러 구호) 등이 있습니다.

▣ 캐나다

캐나다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미국 못지 않게 자동차번호판에 해당 도시의 독특한 특색을 잘 반영하고 있는 국가 중 한 곳입니다. 이 사진은 캐나다 누나부트 주의 자동차번호판입니다. 틀지체가 사각형이 아닌 곰모양을 하고 있는 등 누나부트 주만의 뚜렷한 개성을 자동차번호판에 나타냈습니다. 기존의 상식과 형식에서 완전히 탈피한 누나부트 주만의 자동차번호판을 보고 있으니, 번호판에 적혀 있는 문구처럼 캐나다의 북극을 한번 탐험해 보고 싶습니다!



* QUIZ : 이 사진 속 차량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정답 : 사진속 차량들이 하나같이 자동차번호판을 부착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퀘백 주에서는 자동차번호판을 차량 뒷면에만 부착 한다고 합니다.
퀘백 주는 영어를 사용하는 캐나다의 다른 지역들과는 달리, 대부분 프랑스어를 사용하며 생활, 문화 양식도 대부분 프랑스의 것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캐나다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지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때문에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때, 퀘백 주는 캐나다로부터의 독립의지를 보이고자 퀘백 주만의 힘으로 올림픽을 유치하였으나 그 여파로 엄청난 빚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출을 줄이고자 자동차번호판을 차량 뒷면에만 달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마음 체육대회" 삼하세원의 전통이 되어가다...

"전통"이라는 단어를 들었을때 세원가족 여러분들이 드시는 생각은 어떤것입니까?
소속 되어 있는곳의 전통을 만들어 간다는 것 그건 그 조직을 대표하는 자랑거리 또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생산량이 많아 바쁜 일상 속에서 내 동료,내 가족과 같이 함께 운동하고 하나가 되어 웃고 즐기며 그들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날이 삼하세원에는 있습니다.
바로 매년 실시되고 있는 "한마음체육대회"가 주인공인데, 어느덧 6회가 되었습니다.
처음 08년 9월 "제1회 한마음 체육대회"가 실시되고, 3년이 지나고 나서야 "제2회 한마음 체육대회"가 실시가 되었는데, 한 번으로 끝날 수 있었던 활동이 회장님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2회부터는 매년 실시가 되고 있으며, 삼하세원의 빠질 수 없는 큰 행사가 되었습니다.

매년 "한마음체육대회를 진행을 하면서 대외적으로 삼하세원이라는 회사를 알릴 수 있는 기회와 내적으로는 직원들의 단합과 화합의 장으로 운영이 되는 "한마음체육대회를 지원해 주시는 회장님과 세원가족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한발 한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삼하세원이 되도록 임직원 일동 모두가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15.05.02 제6회 한마음체육대회

14.05.02 제5회 한마음체육대회

13.04.30 제4회 한마음체육대회

세원아메리카 파견팀, 메이저리그의 현장속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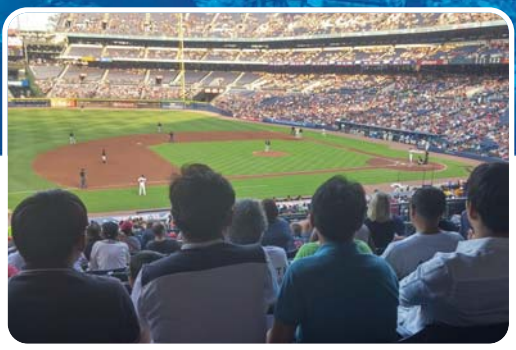
세원아메리카 개발팀 황정배 사원

6월 6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경 윙게이트 호텔 앞에서 전원 모여서 출발! (인솔자 포함 26명)
한국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모습을 상상하며 부푼 가슴을 안고 출발 했습니다. 오후 6시경 야구장에 도착. 정말 덥고 뙤양볕이였지만 강정호 선수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오후 6시 20분경 중앙일보 간이 카운터에서 티셔츠 및 티켓 배부, 단체 기념사진 촬영을 한 뒤 오후 6시 40분경 지정된 자리로 가서 간식거리 및 음료수를 구입 했습니다.
KMC 파견자들과 한국 세원 파견자들은 이렇게 큰 핫도그는 처음 본다며 맛있게 식사를 마치고 음료수를 한잔하면서 야구 경기가 시작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오후 7시 10분 야구 경기 시작; 사람들이 에틀랜타 브레이브스의 응원가에 맞춰서 손을 앞으로 휘저으며 함께 음악을 따라 부를 때, KMC 파견자 및 세원 직원들도 손을 저으며 함께 응원을 했습니다. 오후 9시 10분경 기다리고 기다리던 강정호 선수가 8회 말에 등판을 했지만 너무 아쉽게도 삼진 아웃을 당해서 다들 아쉬웠습니다.
오후 10시,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채 야구장을 나와 전원 귀가 완료했습니다.

Major League

Major League

Major Leag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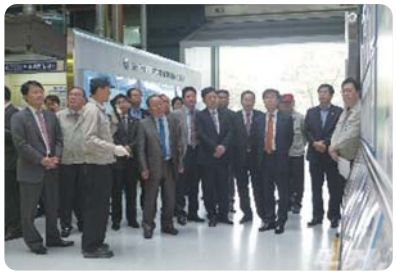


세원아메리카 개발팀 김우범 대리

한국에서도 한 번 안 가본 야구장을, 그것도 야구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처음 가본 참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것도 한국의 강정호 선수가 몸담고 있는 피츠버그와의 경기였고, 한인의 날로 지정되어 정말 많은 한국 사람들이 한데 모여 재미있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빠뺨빠뺨 빠뺨빠뺨 빠라빠람~~
미국 애국가가 울릴 때 벤치에 서서 경례하고 있는 강정호 선수의 뒷모습을 보니,
미국보다 100배 작은 나라에서 뛰던 한국 선수가 100배 이상 큰 MLB 무대에서 뛴다고 생각하니 같은 한국인으로서 대단한 자긍심과 애국심이 불타올랐습니다.
아쉽게도 강정호 선수는 선발로 나오진 못했지만 큰 선수들과 같은 벤치에 있는 선수를 보는 것만으로도 감동이었습니다.
게다가 맛있는 간식들과 응원문화 등 정말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해서 돌아오는 내내 너무 아쉬웠습니다.

강정호 화이팅, 피츠버그 화이팅~

SEWON NEWS



대구경북무역상사협의회

지난 4월 26일, 대구·경북무역상사협의회의 16차 사랑방 모임이 세원정공에서 열렸습니다. 사랑방 모임은 다른 업종간 정보 교류의 장으로 세계를 시장으로 쌓아온 자기만의 시장 개척 노하우와 경영철학을 소개하고 공유하기 위해 6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지역 수출 업체들의 대표적 이업종 교류 모임입니다. 이번 16차 사랑방 모임에서 우리회사는 생산 현장소개를 비롯하여 자체개발 제품의 해외 직수출, 해외공장 신설 등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기업 대표들은 세원정공의 해외진출 모델과 기술개발 핵심역량 확보 전략등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많은 관심을 나타내는 등, 성공적으로 사랑방 모임 행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세원테크 품질 5스타 달성을 위한 실천결의 등반대회 실시

지난 4월 26일 세원테크는 품질 5스타 달성을 위한 실천 결의 등반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관리직 및 조반장 51명이 참석하여 광덕산 등산 및 부서별 5스타 세부실천 계획을 발표하고, 점심식사 후에는 4개의 팀으로 나눠 족구대회도 하였습니다. 이번 등반대회에는 바쁘신 일정에도 김상현 사장님께서 참석하시어 저희 세원테크 직원분들에게 많은 격려와 품질 5스타 달성 의지를 높여주셨습니다.

이번 등반대회를 통해 5스타 달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모두가 하나되는 마음으로 2015년 세원테크! 5스타 달성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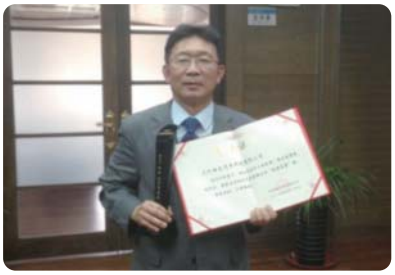
삼하세원 연수생 문화체험 실시

낯선 한국땅에서 6개월간의 짧은 연수기간 동안 연수생들이 빠른 적응력으로 현장 공정 실습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음의 계절인 5월을 맞이하여 세원물산 총무팀 일동은 2015년 5월 10일 삼하세원 연수생들과 함께 경주문화체험을 다녀왔습니다. 역사의 도시 경주에서 불국사, 보문단지, 첨성대를 돌아보면서 한국의 유적지를 감상하고 전보다 한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삼하세원 애심활동 실시

2015년 4월17일, 동심회와 여직원회가 주관이 되어 사회공헌 활동인 애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평소 관심없이 지나 다니는 출근길을 묵묵히 관리해주시는 환경미화원 분들을 회사에 초대하여 공장견학 및 감사의 마음을 표시 하였으며, 애심활동을 주관해 준 동심회와 여직원회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눈물을 보이는 모습을 보니 왠지 가슴이 뿌듯해지는 활동이었습니다.



북경현대주관 2014 품질우수상 수상

2015년 5월 13일, 복건성 하문에서 북경현대 주관으로 진행된 행사에서 삼하세원이 작년 "2013년 최우수고객사" 선정에 이어 올해에도 "품질우수상"을 수상 하였습니다.
2015년도 후반기에도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March of Dime

지난 5월 2일에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유아돕기 자선기금행사인 "2015 March of Dime" 행사에 세원아메리카 한마음회도 전직원들과 함께 $15,000의 자선기금을 모금하여 전달하였습니다. 일회성의 단발선행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의 도움이 필요한곳에 눈을 돌리고 도움을 주고 행사에 참여하는 한마음회의 자발적인 참여에 외부참석자들의 깊은 관심을 모으기도 하였습니다. 세원아메리카 전임직원 모두의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Keep Troup Beautiful

지난 5월27일, 세원아메리카 한마음회에서는 "2015 트룹을 아름답게" 라는 행사에 참여하여 한마음회 및 전체부서의 관리직등이 오전에 한시간 동안 회사의 내외곽을 삼삼오오로 흩어져 쓰레기 및 담배꽁초 등을 주우며 깨끗한 일터를 만들기위해 기쁜 마음으로 모두 임하였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에는 번호추첨을 통해 트룹 카운티 티셔츠와 회사기념품을 나눠주며 임직원들이 서로 얼굴도 보고 웃으며 함께 시간을 보내 더욱 뜻 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봉사와 기쁨이 함께 하는 한마음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너

LOVE LETTER

미소가 아름다운 내 아내에게~~

안녕~~ 결혼하고 처음으로 여보에게 편지 쓰네요~~

결혼 준비 한다고 너무 바쁘게 살았네요~

요즘 정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마다

나를 위하여 아침을 준비해주고

매일매일 사랑한다고 출근 잘하라고 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요.

그런 당신을 보면 언제나 저도 행복합니다.

여보한테는 이야기 못했지만 아침에 아침밥 준비하면서 가끔

꾸벅이는 모습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언제나 우리 이렇게 서로 바라보기만 해도 가슴이 행복해지고

기분이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내 사랑 민아야~~

-서원정공 품질보증부 김소은 사원 -

LOVE LETTER

우리가 결혼한 지 이제 한 달이 되었네.

결혼 준비하고 이사하고 하느라 서로 정신없는 시간을

보낸 것 같아~

결혼 준비 중에 많이 싸우기도 하고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다 끝나고 나니 그냥 추억이 된 것 같아.

짧은 연애 기간에 아직은 서로 안 맞는 점도 있지만

앞으로 서로 맞춰가며 이해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서로에게 조금 더 노력하는 부부가 되자 ^^

– 세원정공 조립반 이민섭 사원 –

LOVE LETTER

LOVE LETTER

LOVE LETTER

늘푸른 이야기

TO. 사양관리팀

(저희 팀이 이 글을 읽을지는 모르겠지만..)
입사한지 6개월이 흘렀고 사양관리팀에 들어온 지 5개월이 다 되었습니다. 처음 신입 교육을 마치고 사양관리라는 부서를 배치받았을 때는 사양관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 처음 보는 분들과 낯선 환경에서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김세호 부장님을 비롯한 팀원들과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모두 개성이 강하고 배울 점이 많은 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출근을 하고 며칠 뒤에 김세호 부장님께 한 시간 반가량 앞에 서서 혼이 나면서 부장님은 교육을 하거나 일을 하실 때 칼 같은 분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무서울지 몰라도 속으로는 항상 팀원들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현중 대리님과는 사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인생의 많은 조언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카드 리볼빙, 러브스토리 등 인생의 선배로서 많은 조언을 얻었습니다. 석기태 기사님은 저의 사수로써 전반적인 교육을 담당하면서 물었던 것을 또 묻는 제가 답답하고 본인 업무가 많음에도 (화는 냈지만) 잘 가르쳐주셔서 업무를 조금이라도 빨리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송이씨는 연구소에 여직원들이 많지 않음에도 항상 미소를 잃지 않고 일을 하며 업무를 다이어리에 꼼꼼히 정리하는 모습을 보며 '나도 저렇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들게 해주었습니다. 앞으로 많이 혼나겠지만 열심히 배우는 팀원이 되겠습니다.
P.S 김세호 부장님! 이 글을 보신다면 소고기 한 번 사주세요.

– 기술연구소 사양관리팀 김원준 사원 –

To. 사랑하는 나의 아들들에게

시간이 벌써 흘러 너희가 이렇게 많이 자랐구나… 일곱살 또 세살…
이것 저것 하고 싶고 갖고 싶은거 많은 너희들에게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지 못해 아빠로서 많이 미안해~~
가끔은 사진을 보며 요녀석들이 벌써 이렇게 컸구나 하는걸 보며
가슴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했단다.
항상 건강하고 밝게 자라줘서 고맙고
항상 너희들에게 친구같은 편한아빠가
되도록 노력할께 ~~
사랑한다 아들들~
그리고 소중한 한사람…

– 세원물산 교육팀 정재경 사원 –

To. 정화와 은주

휴식시간에 맘껏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좋다!!

세원테크 입사해서 일도 사람들도 모든것이 낯선 나에게 먼저 다가와

내 편이 되어준 동료 정화와 은주.

일하면서 힘들고 속상할 때면 날 위로 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늘 고마운 친구 같은 동생들~

우리 아프지 말고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자~~^^

– 세원테크 조립반 김복선 사원 –

To. 사랑하는 49기 동기들에게…

반갑습니다. 동기 여러분~! 형들도 있지만 끝을 짧게 쓰겠습니다!!
각지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고 있는 동기들아 어느덧 입사한지
반년이 다 되어 가고 있네. 처음 21명으로 시작해서 아쉽게도 지금은
15명 남짓 남아 있지만 나머지 인원들도 다른 곳에서 열심히 꿈을 위
해 살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지금 시간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OJT때 우리의 즐겁고 행복했던 추억
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도 피식 하면서 웃음이 나네.
날씨도 더워지고 일하기에 힘이 드는 날씨이지만 한 번씩 즐겁고 유쾌
한 자료를 공유하면서 각지에서 생사를 보고하는 동기들이 때론
자랑스럽게 생각되고 반갑고, 힘이 납니다.
처음 동기들이 헤어질 때 우리 1년에 한 번은 모이자라는 말 기억하고
는 있지?? 이제 반년이 지났을 이 시점!! 다 같이 시원한 계곡 가서
백숙 한 그릇 묵자! 다시 좋은 추억거리 하나 쌓을 때 됐잖아~?
정말 힘들겠지만 잘 버텨내서 세월이 흐르고 1년, 2년, 3년…. 10년
뒤에도 반갑게 볼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며 각자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49기가 되자! 혼자 테크에 있는 찬호는 외롭겠지만 우리 모두
가 널 생각하고 있다는 거로 힘이 안되겠지만 힘내라 ㅋㅋ
이만 줄일게 ㅋㅋ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정말 무더워지겠지만 다들
건강 챙기고 더위 묵지 말고!!
Ps. 이 글을 못보는 선호, 오성이, 성현이, 병민이형, 영훈이, 성철이도
보고싶다. 같이보자 49기들아 ~!

– 세원이엔아이 품질보증부 박인규 사원 –

초간단 시원한 열무냉국수

글 - 세원테크 영양사
김 남 희

열무에는 비타민A 와 비타민C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인체에 꼭 필요한 필수 무기질 성분이 들어 있어서 혈액의 산성화를 방지하고 노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름철 입맛이 떨어질때 열무는 식욕을 증진 시켜주고 배부른 포만감을 주는 채소랍니다.
열무에서 제일 좋은 성분은 열무의 씁쓸한 맛인 사포닌 성분인데요.
사포닌은 주로 인삼에 많이 들어 있는것으로 알기 쉽지만 인삼보다 가격도 훨씬 저렴한 열무에도 사포닌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혈압이 낮은 사람은 높여주고 혈압이 높은 사람은 낮추어 주는 신기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것이 바로 열무이네요.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은 인삼 대신 열무를 먹는것이 더 좋은 보약이랍니다.

세원가족 여러분, 한 여름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열무냉국수로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 **요리재료** – 열구김치 약간(열구김치 국물150cc), 계란 1알, 소면, 멸치나시 육수150cc

■ **양념 및 소스재료** – 식초1숟갈, 설탕1숟갈, 연겨자 취향껏, 참기름 약간

■ **요리과정**

1. 열무김치 국물 150cc를 준비합니다.
   깔끔한 국물을 위해 체에 건더기를 걸러내 주세요.
   김치 국물에 멸치 육수와 연겨자, 식초는 취향껏 넣어 냉장고에 차게 두세요.

2.소면위에 올려줄 열무김치는 참기름 살짝 넣어 조물조물 무쳐주세요.

3.소면을 삶아줍니다.

4. 삶은 소면은 찬물에 헹궈 준비합니다.

5. 계란지단을 만들거나 삶은계란을 올리면 좋아요.

6. 그릇에 소면을 담고 열무김치와 계란지단을 올리고 국물을 부으면 완성!

Cool Noodles
Cool Noodles
Cool Noodles

Praise
Praise
Praise
Praise

그대를 칭찬합니다!

"칭찬 한마디 듣는 걸로
나는 두 달을 살 수 있다"
– 미국 소설가, 마크 트윈 (Mark Twain)

세상에 칭찬만큼 아름다운 말이 또 있을까요?
우리가 받는 칭찬 한 마디, 한 마디가 모여
세상을 춤추게 합니다.
세원 가족분들도 따뜻한 칭찬의 한마디를
전해오셨습니다.
그 달콤한 편지를 함께 읽어볼까요?

참 잘했어요

기술연구소 부품개발팀 김상우 대리

갈수록 날씨는 뜨거워지고 불쾌 지수는 조금씩 올라가면서 직장인들을 지치고 힘들게 하는 여름이 코앞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런 날씨에 동료들의 잔잔한 미소와 격려들이 때론 힘든일을 해낼수 있는 마음의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규 개발해야 하는 차종들이 많아지면서 업무가 늘어 늦은 퇴근, 휴일 출근 등으로 인해 몸도 지치고 마음도 힘들 법도 한데도 한번의 싫은 내색도 없이 항상 입가에 미소를 지으면서 동료들을 대하고 업무 협조에 응해주는 김상우 대리를 칭찬 하고자 합니다.
당신의 환한 미소가 동료들에게 힘이 되기도 합니다.

– 기술연구소 설계팀 송석상 부장 –

세원물산 관리부 황원달 사원

세원물산 환경지킴이!

하는 일, 궂은 일, 좋은 일에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세심함, 남에 대한 배려심과 이해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황원달 사원 파이팅!

힘내세요

– 세원물산 생산부 김숙근 사원 –

세원테크 보전반 김진완 사원

칭찬하고 싶은 분은 많은데 한 사람을 말 한다는게
참 어렵군요. 저는 보전반에 근무하는 김진완 사원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기계 고장이 있을 때 호출하면 항상 웃으면서 달려오고
1분 1초라도 빨리 고치려고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고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세원 가족이
되어 주길 바랍니다.

– 세원테크 프레스1 반 조용안 사원 –

세원이엔아이 개발부 이미숙 사원

항상 친절하게 웃음을 잃지 않고 반겨주시는 분이라
뵐 때마다 저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혼자 시작실 개발 업무를 수행 하시느라 바쁘신 와중에도
항상 친철한 미소를 잃지 않으시고 묵묵히 일하시는
모습은 사회생활에서 반드시 본 받아야 할 점이라
생각합니다.

– 세원이엔아이 품질보증부 임우진 대리 –

2015 세원가족 뜨거운 여름! 사진 공모전

물놀이, 수박, 해수욕장, 무더위, 땡볕, 여름스포츠 등
여름과 관련된
다양한 소재로 자신만의 개성 넘치는 사진을 찍었다면
지금 바로 응모해주세요!

■ 응모주제

올 여름 지인들과 함께 보낸 즐거운 시간

■ 응모방법

디지털 카메라, 핸드폰으로 촬영한 사진 모두 가능
(간략한 사진설명 유첨 바랍니다)

■ 접수기간

2015. 08. 01 ~ 2015. 09. 04

■ 접수방법

시나 메신저 : 기획팀 강다애 / 직시 시보담당사
E-mail : danakang11@se-won.co.kr
가가오톡 : dana89

■ 상품

세원 베스트상 : 백화점상품권 (5만원 권)
세원 포토상 : 백화점상품권 (3만원 권)

■ 선정작 발표

〈늘푸른세원〉 가을호 (10월 발행예정)

[늘푸른세원] 발행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움 주신 분

신세계상품권
1만원권

기술연구소	부품개발팀	최해성 대리
세원테크	총무팀	김태윤 사원
세원이엔아이	개발부	안대현 사원
세원정공	전략구매팀	김기현 대리
세원물산	총무팀	김은주 사원
세원테크	품질보증부	곽동철 사원
세원이엔아이	개발과	배기현 사원
세원정공	품질보증부	김재익 사원
세원정공	조립반	이민섭 사원
기술연구소	사양관리팀	김원준 사원
세원물산	교육팀	정재경 사원
세원테크	조립반	김복선 사원
세원이엔아이	품질보증부	박인규 사원
기술연구소	생산기술팀	류경현 사원

사우 동정

결혼을 축하합니다

세원테크	임원	김진석 전무 / 자녀결혼	4월 28일
세원정공	품질보증반	김재익 사원 / 본인결혼	5월 06일
세원테크	영업과	전은주 사원 / 본인결혼	5월 11일
세원정공	조립반	이민섭 사원 / 본인결혼	5월 27일
세원정공	품질보증부	황현규 사원 / 본인결혼	5월 29일

삼가 명복을 빕니다

세원정공	생산기술팀	김홍석 과장 / 조부상	4월01일
세원정공	개발기술팀	이석우 차장 / 빙부상	5월 18일
세원정공	잡역부	양호철 사원 / 부친상	6월 12일
삼하세원	생산부	윤오현 반장 / 형님상	7월04일
세원정공	개발기술팀	배은정 과장 / 부친상	7월 21일
세원정공	재경팀	배선수 대리 / 조모상	7월 23일

사보 지기

[늘푸른세원]을 만드는 사람들

편집부	세원정공	기획팀	강다애	취재기자	세원정공	기획팀	박재홍	금형공장	관리팀	최동선
	세원정공	비서실	주민경		세원물산	영업과	윤서연	삼하세원	총무부	이보람
					세원테크	자재과	김효정	세원아메리카	비서실	이민경
					세원E&I	부품구매부	김수경			
					세원E&I	총무팀	이지현			
					기술연구소	신기술팀	이창훈			